

●●● 함경섭 대산농장 대표

고품질 병아리 생산에 최선



▲ 대산농장 대표 함경섭 이사

양계와 함께 33년

함경섭 사장은 건국대학교 미생물학을 졸업하고 1973년도 삼일부화장의 농장기사로 입사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육방법 및 노하

본 회 종계분과위원이며 이사로 활동하면서 고품질의 병아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경섭 사장(62세)은 지난 11월 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종계부화인대회에서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여 농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우수양계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날 만나본 함경섭 사장의 수상소감과 33년의 오랜 기간동안 함께한 양계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에 대해 터득하였다.

이후 한일부화장의 영업부장으로도 근무하면서 사양가 등 양계관련 주변 인물들과도 돈독한 인간관계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1982년도 근무 당시 아바에이카 본사인 일본 '수쿠'

사의 방문교육 등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종계업의 넓은 안목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한일부회장 근무당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일사료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근무 당시 사양가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한단계씩 쌓아나갔다.

올인-올아웃으로 무질병 추구

14년간 다져온 오랜 경험과 기술로 국내 초기 양계업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1987년 현 대산농장을 설립하여 20여년간 종계사육을 하고 있다. 함 사장은 3개동 계사로 총 3만수 종계사육을 하면서 위탁 부화로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3개동 중 입식계군에 따라 노계출하를 하는 계사는 최소 6개월 이상 비워둬으로써 누구나 알고 있는 '올인-올아웃'을 꾸준히 지켜왔으며, 이것이 질병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대산농장은 20여년간 종계사육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 종계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농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의 품질에 있어서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수양계인상 수상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유공자로 인정되어 5년만에 개최된 종계부화인대회에서 함경섭 사장이 우수양계인 농림부



▲ 종계부화인대회에서 우수양계인 농림부 장관상 수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이전, 축산인의 모범이 되어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에서 각각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33년간 양계업을 하면서 농림부 장관상을 세 번째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수상은 종계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수상하여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고, 좀 더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농장대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경섭 사장은 첫 입사후 부화장에서 일하면서 첫 걸음마부터 관련분야 지인을 통해 무질병, 무사고를 위해 풍부한 지식을 쌓은 덕에 14년 후에 대산농장을 무리없이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오랜 세월동안 종계업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뜻을 밝혔다. (정리 | 장성영 기자)

●●● 김기석 한국가금학회장(경북대학교 교수)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회운영을



▲ 한국가금학회장에 취임한 김기석 교수

지난 11월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한국가금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김기석 경북대학교 교수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1년동안 가금학회를 이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가금학회 회장직을 맡게 된 김기석 교수를 만나 가금학회 운영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971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1984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1974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원
1978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2003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2006 한국가금학회장

한국 가금질병 연구의 세계화 발판

김기석 교수는 1974년부터 가축위생연구분야에 검사원으로 첫발을 내딛고 1978년 가축위생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30여년 동안 양계 질병·방역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70년대 말에는 당시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던 닭봉입체 간염을 국내 최초로 확인하고 그 진단기법을 확립하는 한편, 마이코플라즈마의 진단기법을 확립하고 예방약을 개발하였다. 또한 닭 대장균에 대해서는 자가백신의 개발 실용화를 이룩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특

히, 전세계 양계산업에 경제적 피해가 가장 많은 닭 콕시듐병의 원충을 국내 처음으로 대량 순수분리 기법을 확립하여 분자생물학적 연구 기틀 마련은 물론 최첨단 기법에 의한 약독화 생원충 예방약 개발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92년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연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후 가금티푸스를 국내처음으로 발생, 확인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외에 양계질병 연구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장위주의 인재육성

김기석 교수는 연구시절 축적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후학양성은 물론 농가 및 양계 관련 업체의 질병방역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등 어느 때 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김기석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는 가금전문 수의과 교수가 없었지만 2003년 김 교수가 부임하면서 가금분야 수의분야에 활성화를 가져왔다. 현장을 위주로 실습기회도 높여가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가검물을 수시로 의뢰하는 등 어느 연구기관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도 직접 닭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회로

김기석 회장(교수)은 가금학회를 이끌면서 크게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째 양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금학회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학회가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산·학·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론과 정보를 발굴해내고 적립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역대 회장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현장을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축산과 수의분야가 어우러진 학회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가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과 수의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할 수 있으며 AI 등 신종질병으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최근 가금산업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수의 분야에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가금에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가금학회가 창립된 1973년 이후 33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다양한 계층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 양계인들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진 양계인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화합, 단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재단으로부터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가금학회지가 등재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갈 예정이다. 가금학회지가 등재지로 등단될 경우 질 좋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가금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년 초에 새롭게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sop.org>)도 많은 회원 뿐 아니라 양계인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꾸며나갈 예정이기도 하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